

“장애인, 노동을 통해 사회 통합까지” 노동부 장관 ‘이화여대 서울병원’ 현장 방문

- 학교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수사례, ‘이수매니지먼트(주)’ 노동자 격려 -
-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통한 통합고용 우수사례 확산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5일(금) 15시,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이화학당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수매니지먼트(주)’ 소속 장애인 노동자를 격려하였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장애물 없는 일터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동자 중 65.3%가 발달장애인으로, 청년 장애인*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 청년(15~29세) 장애인 중 발달장애 비율: (’19)64.3% → (’22)66.7% → (’25)69.6%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시설 투자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고용 컨설팅, 장애인 고용장려금, 발달장애인 대상 일과 후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이수매니지먼트(주)’는 학교법인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이다. 편의시설(편의점, 카페 등) 운영, 병원 업무 보조, 간편식 제조 및 교내배송, 제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발굴해 1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였으며, 학교법인의 특수교육과, 체육과학부, 조형예술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연계하여 체육·문화·여가 등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 결과, 모회사인 ‘이화학당’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19년 이대 서울병원 개원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을 계속한 결과 ’25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하였다.

* 모회사(이화학당) 장애인고용률: (’20) 1.50% → (’25) 3.25%

김영훈 장관은 "장애인고용은 단순히 일할 기회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등 모범사례가 학교·의료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실무 추진 TF 구성을 지시하였다.

붙임 1. 현장 방문 개요

2. 이화학당 장애인 고용 확대 사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책임자	과 장	고혜연 (044-202-7481)
		담당자	사무관	남덕렬 (044-202-7482)
			주무관	장윤진 (044-202-7489)



☐ **방문개요**

- 일시 : '26. 6월 5일, 15:00~16: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실장, 장애인고용과장 등
- (공단) 이사장, 기업서비스국장 등
- (사업체)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이수매니지먼트* 대표, 장애인 노동자 등

* 모회사 (학)이화학당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소속 사업체

☐ **세부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일정
15:00~15:10	10'	■ 사전 환담 및 표준사업장 소개
15:10~15:30	20'	■ 노동현장 탐방 * 장애인 노동자 업무(휠체어 관리, 검체운반 등) 견학
15:30~15:55	25'	■ 현장 간담회 * 장관님 인사말씀 → 이화학당 이사장 인사말씀 → 자유토론
15:55~16:00	5'	■ 기념 촬영

□ 이화학당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경과

- **[장애인 고용 확대 결정]** 이대 서울병원 개원('19) 후 상시근로자 증가 등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3.1%) 미달성, 부담금 증가 경험
 - 대학·의료원 협업하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21.下~)
- **[직무개발·확산]** 전문 인력 중심의 직무 구조(예: 교원, 의사) 등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 및 고용 어려움
 - 간호사 부업무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화 “틈새” 직무 발굴 노력
 - **(병원)** 운영 초기, 장애인 노동자 적합 업무로 간호사의 부업무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휠체어 소독·이동 업무를 도입('23.4.)
 - 현재 검체·약품 운반('23.5), 주사실 소독·시트 정리('24.4), 사무 보조('24.4) 등으로 확대
 - **(학교)** 학교 내 제과 업무('23.2)를 시작으로 장애사원 업무 도입
 - 이화상점 ('23.8), 카페 운영('24.2), 간편식 제조('25.2) 등 장애인 직무를 교내 전반으로 확장

[현장의 목소리]

“ 장애 사원들은 항상 인사성이 밝고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동료예요”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원래 저희 간호사들이 하는 체중계 결과지 자르기, 주사실 클렌징, 환자 의자 클렌징까지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주요 성과

- 비장애 및 장애 노동자가 어우러져 생활하는 “통합 고용” 달성
 - 학교·병원 등 비장애인과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업무 수행

[현장의 목소리]

“ 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후 비장애인 업무가 줄어들게 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장애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지속 증가

→ 의무고용률 달성('25) 및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25.10)

* 상시근로자수 172명, 장애인 110명(64.0%)

-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비율 100%(110명), 발달 비율 99%(109명)

** 모회사(이화학당) 장애인 고용률: ('20) 1.50% → ('25)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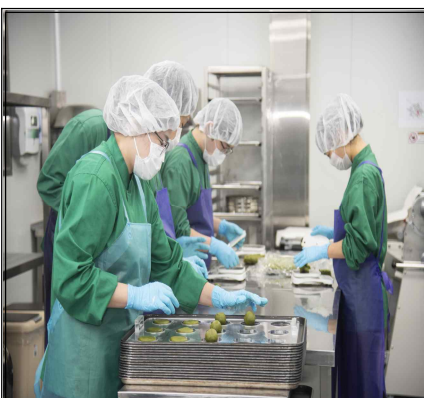
○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안정 지원

- 표준사업장 근무 경력자, 사회복지사 등의 매니저(장애사원 관리자) 채용, 장애사원 5명당 1명씩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지도
- 대학 내 인프라(특수교육과, 음악치료학과 등)를 활용, 장애인 노동자 대상 체육·미술 등 동아리 프로그램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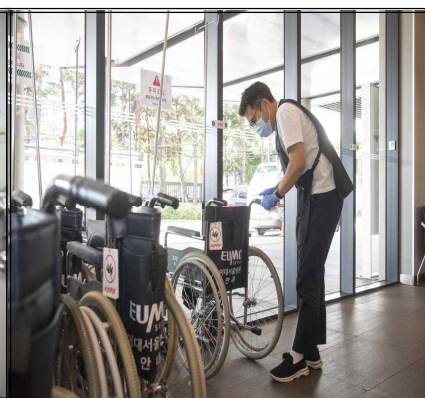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3개월 동안 일을 하다보니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업무가 재밌어요 ”

“ 저는 라떼같은 음료를 잘 만들어요!”



이화과자(베이커리)



이화목동병원 의료원팀



특수체육 동아리활동